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2月12日(木)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豫算案審查(서울特別市公務員敎育院)
 2. 1992年度豫算案審查(公報官)
 3. 1992年度豫算案審查(서울市立大學校)
-

審查된案件

1. 1992年度豫算案審查(서울特別市公務員敎育院) ... 1面
 2. 1992年度豫算案審查(公報官) ... 21面
 3. 1992年度豫算案審查(서울市立大學校) ... 44面
-

(10時 35分 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다음에는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年度豫算案審查(서울特別市公務員敎育院)

○委員長 權會榮;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公務員敎育院所管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1992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敎育院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來年度 豫算案에 대해서 여러 委員
님들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權會榮 委員長님!
그리고 文化教育委員會 委員님을 모시고 來年度 公務員教育
院 豫算案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시는 바와 같이 公務員教育院은 公務員教育訓練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울시 지역내에 있는 4級以下 公務員에 대한
教育訓練과 國際化, 專門化, 그리고 情報化의 시대적 요청에
副應하기 위하여 公務員의 精銳化와 아울러 신피받는 公職자
양성에 目標를 두고 業務를 推進해 왔고 또 앞으로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教育訓練生을 수용하는 施設로 총 부지 9萬 2,000坪 중에서
共用廳舍敷地가 3萬 4,000坪이 됩니다만 그 중에 建物이 市
政研究官室에서 관장하고 있는 市政資料室을 포함해서 3個棟
약 4,4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講義에 전용되는 施設은
강의실 5個와 그리고 合宿教育 때 쓰는 合宿施設인 생활관 1
棟이 있습니다. 今年度 教育 및 試驗業務 推進實績은 계획인
원 2萬 2,142名 중에서 12月 3日 현재 1萬 8,686名을 實施
해서 目標의 84%를 完了했습니다만 今年末까지 나머지 計劃
人員도 마칠 예정입니다. 試驗業務는 公務員試驗이 6,800名,
民間人 자격시험이 4회에 걸쳐서 응시자 3萬 5,000명, 그리
고 이 중에서 資格을 取得한 인원이 5,264名이 되었습니다.

다음 來年度 教育訓練計劃과 試驗管理業務에 대해서 보고드
리면 教育訓練은 인원면에서 昨年과 비슷한, 약간 상회하는
약 2萬 3,00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 내용면에 있
어서 행정수요의 多樣化와 專門化에 부응하기 위해서 實用的
인 教育을 통해서 公務員의 精銳化와 民主化에 주력할 計劃
입니다. 그리고 公정한 시험관리를 통해서 우수인력의 確保에

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公務員 教育訓練과 시험관리를 위해서 저희 教育院이 編成해서 요구한 來年度 歲出豫算 規模는 教育訓練에 43億 2,000萬원, 公務員試驗인 민간인 각종 資格試驗에 약 5億 원 이렇게 해서 48億 3,500萬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昨年度 豫算에 비하면 약 20%가 增額된 規模입니다.

來年度 總 豫算 48億원을 몇 가지 區分해서 報告를 드리면 우선 硬直性經費가 약 80%에 해당하는 29億 여원이 됩니다. 이것은 處遇改善에 따르는 人件費, 교학운영에 必須적으로 필요한 經費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機關運營經費는 12年前에 저희 廳舍를 建立하였기 때문에 現在는 노후화되어서 舍宿施設인 생활관의 배관방수공사 이런 것들이 補修를 해야 될 데가 있고, 또 市政資料室의 보수공사도 아울러서 必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教育訓練經費는 講師手當과 教材, 教育機資材 購入費와 教育生 給糧費에 所要되는 經費를 計上을 했습니다.

來年度 豫算編成의 특징은 첫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廳舍 老朽化에 따른 施設維持補修, 둘째, 公務員의 教育刷新의 일환으로 洞事務長 요원양성을 위한 課程의 新設, 公職입문시에 확고한 公職관과 윤리관을 確立시키기 위한 新規採用者 教育課程의 擴大가 되겠습니다.

尊敬하는 委員님 여러분! 이번 豫算에 대하여 公正한 審議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教育需要의 增加에 따르는 施設의 擴充과 情報化에 대비한 行政電算業務의 擴大實施와 아울러서 앞으로 더 加速化될 專門化 民主화된 公職者 養成을 위한 委員 여러분들의 支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市가 先進都市로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公

職者の 精銳化에 있다고 믿고 院長을 비롯한 全 職員은 公務員 教育訓練을 통하여 자기 所任을 다하는 公務員, 奉仕하는 公務員들이 되도록 최선의 努力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1992年度 一般會計 서울特別市豫算案 중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教育院 所管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리기에 앞서 여기에 提出된 92年度 事業計劃書와 기타 附隨資料들을 검토해 보니까 아주 예의 작은 것까지 分析되어서 참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檢討報告 內容도 제가 붙일 만한 書類가 없을 만큼 간편하게 되었고,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어제 워드기계가 고장이 나서 內容을 한글로 쳐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한문으로도 못 치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첫번째로 歲入 및 歲出豫算 총괄대비표를 보면 歲入에서 총계치로 92年度 1億 5,000萬원이 策定되어서 11.2%가 昨年보다 감소되었습니다. 歲出豫算은 48億 3,600萬원이 策定되어 가지고 20.2%로 增加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硬直性豫算과 事業性豫算의 對比表를 보면 硬直性豫算, 예를 들어서 給料라든지 이런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면 38億 4,600萬원으로 6% 정도가 올랐고 彈力性있는 事業性豫算은 152%로 增加가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 現況인데 이것은 이 資料 이외에 教育院에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資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院長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

고 넘어가서 檢討意見을 中心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歲入은 11.2% 감소되고 歲出은 20.2%가 增加되었으며, 歲出 豫算中에서 탄력적인 事業性豫算이 152% 증가되었다는 것은 敎育院의 의욕이 상당히 넘쳐흐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歲入部門을 보면 전액 경직성수입으로서 일정한 룰에 의하고 規定에 준거해서 編成되었습니다. 歲出面을 보면 여러 가지가 명세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問題가 세 가지 정도가 提起가 되었습니다. 需用費 및 手數料 중에서 原稿料가 있는데 이것은 중견간부과정의 原稿料인데 2,100萬원으로 計上된바, 前年度 교재를 再活用하고 受益者 負擔原則에 따라 一部만 책으로 수익자들이 購入하도록 하면 원고료 2,100萬 정도가 豫算節減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고,

두번째로 試驗管理手當 중에는 채점수당 消防職하고 공채승진은 그런 採點手當인데 여기에 448萬 8,000원이 計上되었는데 이것은 制度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 主觀式으로 하던 것을 容觀式으로 採點方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容觀式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敎育院의 客觀式 採點施設이 다 있으니 까 이 經費는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세번째로 시험관리 수용비 및 手數料 중에서 新聞公告料 8 個 試驗 2億 4,162萬 6,000원을 計上하였는데, 이 중에는 전년단가 新聞公告料 단가를 3萬 3,000원 하였던 것을 3萬 5,000원으로 단가 增額시킨 金額이 1,208萬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단가가 引上된 것인지는 確認할 만한 것도 없고 要因이 확실치도 않고 公告料 단가를 前年水準으로 인정해서 策定한다고 하면 1,208萬 1,000원 정도가 豫算이 節減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서울特別市公務員教育院 所管豫算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는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答辯 方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委員 여러분들께서 먼저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復 委員; 質疑하겠습니다. 金相復 委員입니다.

專門委員 報告가운데 需用費 및 手數料중 原稿料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지 擔當者가 나와서 說明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專門委員이 指摘報告한 이 內容대로 절감할 수 있는 方法이 있는가 없는가 얘기해 주세요.

○企劃課長 蔡昇基; 企劃課長 報告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견간부 定員은 20名입니다. 서기관 승진예정자 10名, 사무관 승진예정자 10名 그래서 20名인데 今年에는 本廳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 來年豫算에 10名 정도 增加되는 것으로 저희가 計上했고, 그리고 今年度 교재발간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新規發刊한 것이 9종이고 책을 購入해서 준 것이 30종 354권입니다.

지금 專門委員께서 指摘하신 대로 今年에 去年에 발간한 책을 再活用하고, 책도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來年에도 사무관반 10名이 增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豫算 節約해 가지고 豫算範圍內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아니, 이 얘기는 수익자부담의 原則에 의해서 適用하면 2,100萬원을 節減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制度的으로는 어렵지만 可能하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企劃課長 蔡昇基; 네.

○金相復 委員; 가능하다?

○企劃課長 蔡昇基; 네.

○金相復 委員; 그럼 이것이 削減이 되어도 可能하다는 것입니까?

○企劃課長 蔡昇基; 네.

○金相復 委員; 알겠습니다.

○李汪烈 委員; 異議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물론 本人들의 昇進事項이고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식구들 공부를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業務能力을 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課程인데 이 책들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그냥 주어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전체적인 서울시 行政의 極大化의 提高면에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학원과 다르고 이것은 政府의 敎育院인데 어떻게 해서 本人들한테 受益者負擔으로 하겠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이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濟亮; 지금 企劃課長이 절감이 可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修正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敎育院에 입교해서 敎育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재는 저희들이 全部 만들어서 주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과정을 自費負擔으로 교재를 購入해서 써라 하는 것은 그러한 一般原則에는 어긋난다고 생각되고, 특히 두 가지 理由가 더 追加가 되어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一般市中에서 나오는 교재 같은 것은 소위 이론적인 혹은 이상적인 그러한 原理的인 면에서만 다루고 있는 書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敎育院에서 만드는 敎材는 實用的이고 事例中

心的이고 해서 實務에 그대로 適用을 할 수 있는 교재로 構成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長期教育課程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國防大學院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區廳에서 조금 支援을 해서 交通費나 혹은 資料蒐集費에 補助를 하고 있는 것 같고, 內務部 연수원에 들어가는 教育生에 대해서는 宿伯費, 交通費 등 해서 또 일정액을 計上을 해서 支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公務員教育院에 들어오는 書記官課程만이 豫算의 支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本人負擔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委員會別로 혹은 또 機關別로 삭감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次元에서만 볼 때에 소위 제목을 긴급성이 약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시다만 그런 次元에서 굳이 이것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判斷이 됩니다.

○金相復 委員; 알겠습니다. 一問一答式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問題를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現在 저희들이 審議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節減原則으로 한 어떤 目的을 놓고 어느 것을 절감할 것인가라는 것을 찾는 식이라고만 생각하면 執行部의 見解가 좀 다를 것입니다. 필요한 豫算은 必要대로 執行을 해야 되는데 不必要한 것이 없느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會議가 進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는데, 제가 이 質問을 묻는 原因은 우리 專門委員은 우리 個人 委員보다는 좀 다르고 專門性을 가지고 또 全體的인 사실을 증거로, 또 아니면 상황을 確實히 알고 이 意見에 提示를 해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專門委員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물었는데 우리 專門委員님! 確實히 이것은 꼭 必要하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問題가 제기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

것을 제시했지요? 特別한 理由가 있습니까? 一般委員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專門委員 鄭永國; 말씀 올리겠습니다. 實務陣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어보았는데 그 쪽에서 교재가 昨年에 쓰던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면 대체로 쓸 수 있는데 그 이외에 研究資料로 자기가 각자 쓸 책을 사 쓰는 것을 가상을 해서 이것을 計上을 했다고 해서 實務者의 말에 따라보니까 前年度의 교재숫자가 確保되어 있답니다. 그 말을 따랐을 뿐이지, 그 이외에 그 이상은 제가 여러 가지 調査는 하지 못했습니다.

○金相復 委員;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基本的으로 支給해야 될 冊子, 한꺼번에 많이 印刷를 해 놓으면 그것은 基本的으로 주고 그 외에 그 基本的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책을 購入하는 것은 당연히 受益者 부담으로 되는데 院長님이나 企劃課長님의 얘기는 기본적인 問題 가운데도 조금은 節約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난해 썼던 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썼을 때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네.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汪烈 委員; 아니, 그것을 確實히 해 주셔야지, 돈을 깎는 다든지.....

○金相復 委員; 아, 그 問題는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李汪烈 委員;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可能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前年度에 承繼 해 가지고 來年度도 공부를 이 책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지금 現在 우리 李汪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實質的으로 教材를 지금 現在 教育期間이 길지 않기 때문에 教材를 再活用도 하고 몇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만 쓰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敎育院의 다른 豫算보다는 이런 데서 節減할 수 있는 效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실 必要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問題는 넘어갑시다.

○李汪烈 委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敎材라는 것이 자기한테 敎材가 오면 여기에 낙서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活用하는 것이 아니고 여분을 活用할 수 있고 이야기를 지금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분이 과연 承繼해서 來年度에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한테 確實하게 擔當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判斷을 해서 깎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 외의 冊子는 本人이 100권을 사든 될 하든 자기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고.....

○企劃課長 蔡昇基; 企劃課長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內容은 저희가 책을 만들기 위한 原稿料입니다, 受益者負擔金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만들자면 각계 敎授님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인쇄해서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名이고 또 昨年에 해 보니까 9種 정도 發刊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회에서 사주었거든요. 10名이기 때문에 原稿를 써서 만드는 것보다 책을 사주는 것이 低廉합니다. 돈 드는 것이 低廉하기 때문에 그래서 專門委員께서 指摘하신 대로 저희 立場에서는 이렇게 全部 削減하는 것보다는 얼마 정도는 책을 購入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金相復 委員; 네, 알겠습니다. 計數調整으로 넘어갑시다.

○委員長 權會榮; 말씀하세요.

○劉起鍾 委員; 專門委員님! 劉起鍾 委員입니다. 專門委員님이 報告한 事項中에 시험관리 수용비 手數料 중에서 신문공고료 2億 4,162萬 6,000원 중에서 단가를 3萬 3,000원으로 지금 現在 91年度에 3萬 3,000원에서 92年度에 3萬 5,000원으로 增額되는 것으로 計上이 되었는데 이것이 1,208萬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歲入豫算을 볼 것 같으면 手數料收入이 昨年度 올해 對比해 가지고 來年度에 23.8%가 收入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歲入이 지금 23.8% 下向調整이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新聞公告料를 조금 新聞社에 따라서 공고료가 비싸고 적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고 한국일보라든가 그 밑에 下向되는 그러한 新聞社에는 公告料가 좀 싸니까 그렇게 收入豫算이 下向調整된 內容을 보면 公務員採用 應試率이 감소될 趨勢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公告料收入이 감소되었는데 公告料는 引上되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檢討를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具體的인 說明을 해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日刊紙 중에서 톱 日刊紙 말고 公務員들이 採用 應試率도 減少될 추세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서 하는데 說明 좀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께서 심도있게 豫算審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銓衡室長 朴東慧; 銓衡室長입니다. 報告올리겠습니다.

新聞公告料는 91年度 今年度 6月 28日 一部 調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綜合日刊紙인 경우에 조선, 한국, 동아, 중앙, 4개사는 일급지로서 1단 1cm에 3萬원에서 3萬 5,000원으로

調整이 되었고, 서울, 경향, 세계, 한겨레, 국민, 5개사에 대해서는 2萬 6,400원에서 3萬 1,000원으로 引上調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現在 新聞公告는 서울新聞하고 경향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現在 公務員이나 資格試驗을 응시하는 시험종류에 관해서는 現在 거의 서울신문에 지금은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實際 執行額은 今年度 6月 28日 料金調整 이후에도 3萬 1,000원으로 現在 執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萬 3,000원으로도 來年度 豫算 執行하는데는 蹉跌이 없을 것으로 判斷이 되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公務員試驗 및 民間人 資格試驗에 따르는 응시료 있지요?

○銓衡室長 朴東慧; 네.

○孫允準 委員; 1인당 얼마를 받고 했습니까? 그리고 최고 上限線과 下限線을 말씀해주시지요.

○銓衡室長 朴東慧; 公務員試驗인 경우에 6級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民間人 資格試驗은 1,500원에서 2,000원을 徵收하고 있습니다.

○孫允準 委員;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法的上限線이 決定된 것이 없습니까? 1,000원 거기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教育公務員 응시료는 昨年에 2,000원 받던 것이 今年에 2萬원으로 引上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級 이상이던 民間人試驗에서 1,000원에서 1,500원 이 정도면 應試料 負擔金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引上할 用意는 없습니까?

○銓衡室長 朴東慧; 지금 저희들이 民間人 資格試驗으로써 手數料를 받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 방화관리자, 공인중개사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試驗應試 手數料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간호보조원 및 의료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規定이 되어 있고 金額 自體가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인 경우에는 消防法施行規則,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不動産仲介業法施行規則에 각각 金額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引上을 시키려면 關係法 改正이 선행되어야 될 問題가 있습니다.

○孫允準 委員; 같은 公務員 立場인데 사실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教育公務員 응시료는 2萬원이고, 一般公務員한테 1,000원 한다면 사실 次元이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研究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受益者 負擔原則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經費는 자체 調達이 되도록 法 改正을 저희들이 지금 決定中에 있습니다만 來年度에 가서 正식으로 改正節次를 밟겠습니다.

○李汪烈 委員; 質問 있습니다. 역시 新聞公告料事項에서 1단 1cm에 서울신문에 주로 다 지금까지 政府의 試驗案内는 거기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 경우도 1단 1cm가 3萬 1,000원으로 방금 말씀하셨죠?

○銓衡室長 朴東慧; 네.

○李汪烈 委員; 그러면 지금 來年度에 인상분이 없다면 3萬 1,000원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3萬 5,000원 할 理由가 없애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增額시킨 金額이 1,200萬원인데 이보다 더 減額要因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萬 1,000원으로 지금 來年度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銓衡室長 朴東慧; 지금 그런데 인상적용일자가 今年度 7月 10日字 新聞公告 계재분부터 引上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來年度 7월경에도 引上分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豫算을 反映을 해 놓아야만 試驗施行에 蹉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李汪烈 委員; 그것을 얼마나 보는 것입니까?

○銓衡室長 朴東慧; 3,300으로.....

○李汪烈 委員; 서울신문의 경우를 이야기합시다. 서울신문의 경우 지금은 3萬 1,000원이죠?

○銓衡室長 朴東慧; 네, 그렇습니다.

○李汪烈 委員; 그러면 來年度分은 미리 내년 7月 1日 이후 분이 거기 조인이 되니까 그 경우는 3萬 3,000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銓衡室長 朴東慧; 來年度 引上率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事項인데요. 그런데 상반기 節減分을 가지고 下半期에 3萬 3,000원 以上으로 引上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補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李汪烈 委員; 서울신문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네고를 잘 하시면 3萬 1,000원이고 죽 그냥 전적으로 다 전부 기재를 해준다 이런 條件으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日刊紙이고 우리 個人企業新聞도 아니고 政府新聞이다 이것입니다. 성향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銓衡室長 朴東慧; 그런데 이 公告料 관계는 저희 公報官室에서 일괄 料金負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年間契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李汪烈 委員; 됐어요. 이야기하세요.

○銓衡室長 朴東慧; 主管部署인 公報官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汪烈 委員; 네, 그것을 약 3萬 1,000원으로 하십시오.

○李載震 委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載震 委員입니다.

정말 公務員敎育院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여쭙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당이나 휴게실, 합숙소 거기에 대해서 주방보수나 방수 시설, 타일교체 이렇게 해서 1億 2,000, 또한 생활관 배수관 배관교체 해 가지고 2億 5,000, 資料室, 옥상 방수 또한 현관, 복도타일 보수 해서 9,000萬원 정도 해서 약 한 4億 6,000이 豫算이 編成되어 있는데 어차피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實質的으로 이 속에서 來年度로 연기를 할 수 있는 事項은 없는지, 꼭 해야 될 事項인지 그것을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庶務課長 千楠洙; 庶務課長입니다. 庶務課長이 答辯올리겠습니다. 이 業務가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主務課長으로서 總括을 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院長님께서 報告를 드렸습시다만 今年度 總 豫算額에 대해서 약 8億 4,100萬원을 위에다가 增額要求를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硬直性經費하고 事業性經費를 分類해 가지고 아까 報告를 드릴 적에 그 중에.....

○李載震 委員; 다른 말씀 오래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즉 말하자면 주방보수를 하는데 防水施設은 물이 새니까 하고 또한 타일교체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세요. 꼭 해야 된다면 다 해야 될 것이고, 즉 말하자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일부분을 來年으로 移越을 해도 될 수 있는 事項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오래 必要 없습니다.

○庶務課長 千楠洙; 廳舍管理費는 建築分野에 委員님 말씀하

시는 그 分野는 12年이 經過했기 때문에 아주 지금.....

○李載震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庶務課長 千楠洙; 도저히 確保가 안 되고서는 상당히 困難 할 지경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식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 안에 타 教育機關에 비유해 가지고 서울시 公務員教育院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안됐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울시 公務員이 2萬 2,000명 정도 教育을 하는가 하면 內務部.....

○李載震 委員; 그런 것은 우리가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변명이나 그런 것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할 수 있으면 來年度 1年이라도 移越할 수 있는 事項이 있으면 하고 꼭 해야 할 事項이 있는가 그것만 여쭙보는 것입니다.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來年度에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配管이 옛날에.....

○李載震 委員; 배관 12면은 물론 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식당주방을 보수하는데 타일이 이르면 오래 썼기 때문에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떨어지고.....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빠진 것만 바꾸는 것이고 配管工事を 하게 되면 뜯은 부분만 고치는 그런 정도지요.

○金相復 委員; 李載震 委員, 그렇게 넘어갑시다.

○李載震 委員; 네, 알았습니다.

○李喆鎬 委員; 李喆鎬 委員입니다. 지금 削減이니 節減이니 하는데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꼭 必要하다는 것을 節減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補充할 수 있고 또 削減할 수 있는 것을 規模的으로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具體的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明細書 8페이지에 제시한 職員給食費가 나옵니다. 教育生 給食費 現實化 해가지고 職員給食費가 나옵니다. 職員 定額手 當인 福利厚生費로 정액급식비가 매월 全職員에게 5萬원씩 支給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公務員敎育院 豫算의 職員給食 費를 급량비목에 6,608萬 7,700원, 이것을 여기에 쓴 것을 보면 3萬 4,783食이 계산된 根據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3 萬 4,783食을 전 職員數로 나누어 보면 1人當 243食이 되는데 이는 全職員에게 정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時間 外 勤務者나 特別勤務者의 給食인지 이것을 具體的으로 밝혀주 시는데 243食은 敎育日이나 日요일을 除外하면 약 280일 정 도로 나옵니다. 이것을 좀 答辯해 주세요.

○庶務課長 千楠洙; 庶務課長이 報告드리겠습니다.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公務員敎育生을 支援하고 있는 강사, 그러니까 敎官이 되겠습니다만 敎官하고 行政公務員들이 식사는 敎育院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公務員에게 부여되는 식사비는 우리 敎育院에서 外部로 나가서 식사를 職員들이 할 수가 없는 與件이 되어 있습니다. 敎育生이 12時에 마치면 12時 30分도 밥을 먹고 하기 때문에, 全部 다 거기에 從事하는 公務員들이 의식을 못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해서 支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거기에 1,900원을 92年度 要求를 하였습니다.

今年度は 8月부터 1,600원으로 1食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敎育給食數는 敎育訓練生이 1주일을 訓練을 하면 그 중에 비합숙이 있고 또 合宿을 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差額이 생기고, 그 나머지 관계는 敎育人員數에 비해서 敎育人員이 計劃이 삭감이 되면 削減數에 따라서 급식의 數가 줄어지

고 하기 때문에 豫算이 보면 3億 6,500萬원이 增額이 要求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인상에 대해서 豫算要求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李喆鎬 委員; 全職員에게 每月 5萬원씩은 支給되는 것이지요?

○庶務課長 千楠洙; 네.

○李喆鎬 委員; 됐습니다.

○劉起鍾 委員; 지난번에 監査 때 教育需要가 굉장히 增大가 되고 또 情報化時代와 科學尖端化時代를 맞이하서 우리 公務員들의 教育을 매년 5年마다 實施하던 것을 3年마다 實施하고, 또 지금 現在의 施設로는 연간 한 6,900명씩 基本教育을 받지 못하고 移越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講義室이 6室이 지금 不足하고 1日 550名의 수용능력이 不足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講義室 6室하고 기타 지금 現在 需要增大를 수용할 수 있는 施設에 대해서 이번에 豫算案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說明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教育需要를 어떻게 講義室이 增設이 되지 않은 지금 現時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說明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庶務課長 千楠洙; 庶務課長이 다시 答辯드리겠습니다. 이번 에도 우리 劉委員님께서 質疑말씀이 계셨습니다만, 今年度 우리가 現行 公務員教育計劃에 대해서 우리가 公務員教育을 시키는 숫자는 약 2萬 2,000名 教育을 시킵니다. 이것을 96年度에 이것을 놓고 보면 實績에 비해서 약 1萬 6,000명 정도가 積滯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積滯된 숫자는 그렇지 않아도 잠깐 간단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公務員이 4萬 2,000名 중에 一般職 公務員이 4級 이상이 403명이고 5級 이하는 2萬 6,286名이고 그리고 技能職이 1萬 5,386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萬 6,684名 중에 우리 公務員教育法上에 5년에 1회씩 教育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義務的으로 教育法上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教育法上에 되어 있는 狀態를, 우리가 教育施設이 그렇게 충분치가 못하니까 教育을 積滯人員이 4,861名 정도가 積滯가 되어 나감에 따라서 結果的으로 96年 가서는 1萬 6,000名 정도가 教育을, 積滯人員이 온다 그런 問題가 생깁니다.

그래서 施設을 擴充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教育에 지금 어려운 國際化라든지 情報化라든지 또 專門化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計劃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所要되는 1次年度에 용역설계, 토목해 가지고 4億, 2次年度 10億, 3次年度 5億 5,000 해가지고 本廳하고 우리가 交渉을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市の 豫算이 살림살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確保가 못 되고 要求 自體가 上程도 못 되었습니다. 죄송함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래서 한 講義室을 우리가 15億원 정도만 年次計劃으로 해 가지고 確保하는데 來年에도 用役設計를 하는데 작은 豫算이라도 確保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市하고 交渉을 해서 할 計劃으로 그렇게 計劃中에 있습니다. 豫算要求가 안 되어서 저희들 심정을 양해를 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提出해 주신 資料 12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보면 퇴직예정자 과정에 강사수당이 280萬원 計上되어 있고 또 17페이지에 보면 産業視察 項目에서 退職豫定者 産業視察에서 1,356萬 8,600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退職豫定課程에서의 교수내용을 간략하게 說明을 해주시고, 우리 敎育院에서 이렇게 合計 1,636萬 9,600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敎育院에서 主管해서 부부동반이라는 産業視察이 그 동안에 奉職했던 데 대한 위로인지 아닌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退職의 中間管理 課程이라든가 幹部敎育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 직을 충실히 遂行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敎育에 임하는 姿勢라든가, 또 우리가 막대한 敎育費를 투입을 해서 얻는 기대치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退職을 앞둔 이분들에게 이런 敎育시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正式敎科課程에 넣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敎育의 효과치가 있겠는가, 또 91年度에 施行을 하셨더라면 거기에 대한 소감도 豫算과 관련을 지어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敎學課長 吳錦錫; 敎學課長이 答辯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退職豫定者敎育은 서울市長 경우 總務處長官의 承認을 받은 敎育課程의 일환입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退職豫定者가 대부분이 6級 이하입니다. 그런 반면에 서울시 公職에 몸담아있던 期間은 평균 30年 이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退職을 앞두고 그 동안에 익혔던 精神的인 面, 敎養的인 面, 또 앞으로 나가서 社會活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面, 또 退職年金關係制度 中 具體的으로 敎科課程을 設置해서 講義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 주로 外部 精神的인 면이 強調가 되기

때문에 또 딱딱한 公職에 있다가 社會生活에 適應을 하자면 여러 가지 與件變化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노교수를 모시고 講義에 임합니다. 또 부부동반을 해서 産業視察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직자 자신은 經驗이 있겠습니다만, 婦人들은 經驗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産業視察部分은 물론 우리 기간산업의 발전된 內容도 보여주겠지만 부부가 같이 동반을 하는 것은 다소의 위로성인 內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今年에도 前年度에 이어서 實施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公務員教育院長 金濟亮;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만 政府方針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昨年 후반기부터 公務員退職制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停年退職 1年 앞두고 미리 現職에서는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이런 課程을 통해서 연수도 시키고 마지막으로 이런 視察도 좀 해 주고 하는 것이니까.....

○委員長 權會榮;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決事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은 더 時間을 두고 우리가 내일 마지막날 議決하도록 하고 오늘 서울特別市公務員教育院에 대해서 豫算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1時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1時 29分 會議中止)

(13時 1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2. 1992年度豫算案審查(公報官)

○委員長 權會榮; 議事日程 第2項 公報官所管에 대한 1992年度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相鎭; 公報官 李相鎭입니다.

尊敬하는 權會榮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公報官所管 92年度 豫算審議를 提案說明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92年은 定都 600周年을 3년 앞둔 해이며 本格的인 地方自治化時代를 맞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市政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市政에 대한 시민수요도 다양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에서 公報官室에서는 市政을 보다 迅速하고 올바르게 알리는 동시에 市政에 대한 여론과 시민이 원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에 적극 反映토록 함으로써 市政과 市民이 함께하는 행정구현에 力點을 두고 弘報活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92年은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南北統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全社會的, 전시민적 對備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민 개개인 모두가 21세기라는 새 시대, 새 역사 창조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환태평양시대의 주도적 거점도시로서 통일된 조국의 수도로서의 자부심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홍보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쉬운 일면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서울은 市民이 全國 각지에서 모여 사는 大都市로서 地域的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民들에게 서울이 내 故郷이라는,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弘報需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92年度 豫算은 새로운 弘報手段의 開發과 活用 등 기존의 弘報手段을 劃期的으로 補完, 發展시키는 동시에 각종 弘報刊行物の 效率的 管理를 통해서 豫算의 절감과 弘報效果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編成하였습니다.

우선 92年度 歲出豫算에 대한 總括的인 概要를 설명드리면 총 55億 2,800萬원으로서 前年度와 비교해 볼 때 숫자상으로 상당히 增加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각 부서별로 計上되어 있던 弘報物製作費가 91年度보다는 2億 3,000萬원이 감소된 8億 5,000萬원을 一括해서 公報官室로 統合計上을 하였으며,

둘째로는 從前에 전자계산소에서 運營하던 市政輿論調查業務가 公報官室로 移管이 되면서 동 전자계산소에서 計上되었던 5,700萬원을 公報官室로 計上하게 되었으며, 셋째는 老朽 裝備 補強購入費로서 1億 6,500萬원과 市政을 보다 迅速 正確하게 알리고 21세기를 향한 弘報開發事業의 일환으로 弘報 電光板 設置에 30億원을 投資하게 되어 增加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증감 요인을 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 官署當經費가 3億 5,500萬원, 기본경상비 2億 2,800萬원, 경상사업비 9億 2,800萬원으로서 이는 91년도에 비해 물가상승요인 등만 다소 고려해서 編成하였습니다. 다소 不備하거나 不足한 점이 있을지 모르으나 複雜多樣해지는 弘報環境變化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의 각별하신 선처와 支援을 양망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1992年度 一般會計 서울特別市豫算案 中公報官室所管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2年度 一般會計 서울特別市豫算案中 公報官室所管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側의 答辯順序가 되겠습니다. 答辯節次는 一問一答으로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貞順 委員; 趙貞順 委員입니다.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市政弘報 電光板 施設費가 장비유지를 포함하여 92年度 55億 2,800萬원, 전체예산의 54%인 30億원이며, 그 중에서 施設費가 27億 3,600萬원으로 編成되어 있는바, 이 算出根據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市民生活에 긴요한 民원정보나 市政主要施策을 신속히 안내한다는 취지는 수공이 갑니다. 2조 설치장소는 어느 곳으로 豫定하고 있는지 說明해 주시고, 2개조의 設置는 제한된 廣告 情報交換 등에 效果가 얼마나 되겠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本委員은 전광판설치 대신 서울市民新聞이나 시보 등 大衆媒體를 통한 市政弘報機能을 다원화하는 側面으로 構成하여 實施하는 것이 절실히 要求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公報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相鎭; 趙貞順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事項 答辯드리겠습니다. 施設費 27億 3,600萬원의 算出根據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同 金額은 저희가 전광판이 이미 設置되어 있거나 지금 또 전광판업자 해서 몇 군데다 문의를 해서 저희가 金額을 뽑아 보았습니다만 전광판은 전자자기방식, 자체발광형식, 비디오 비전, 이 3가지 形態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8m ×12m 이것이 지금 現在 대략 設置되어 있는 그 中間 形態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았더니 전자자기방식은 12억 1,000만원, 한 대당입니다, 자체발광방식은 11億, 비디오 비전은 13億 2,000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長短點을 전부 比較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그냥 너무 劃期的이고 交通障礙가 심한 이런 시각장애가 심한 이런 비디오비전 物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화가 같이 되는 이것보다는 그냥 자체발광방식으로 칼라 LED 이것이 무난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11億짜리로 지금 2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속 이런 것으로 해서 27億 3,600萬원이 計上되었고, 다음에는 그 設置場所가 어디에 정해졌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런 必要性을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 다만 이것을 具體的으로 設置를 계획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 議會에서 저희 市 執行部에 이런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단 支援해 주신다면 그 때부터 具體的으로 設置實行計劃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現在로 보아서는 이런 必要性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方向提示, 어떤 그런 方針은 저희 나름대로 정해져 가지고 이번에 要請을 했습

니다만 場所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그냥 저희 實務 생각입니다만 우선적으로 場所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 中央에는 市廳이나 市廳 근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견 私見입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과연 情報交換 등에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設問이라든지 기타 무슨 이것 設置하는데 公聽會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거쳐보지는 않았습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現在 저희가 行政을 하면서 항상 꾸지람을 들어왔던 것은 왜 官에서는 民間같이 좀더 밝고 공개되고 앞서가는 行政을 못하고 맨날 어둡고 뒤따라가는 그런 것만 하느냐, 弘報도 지금 왜 그 企業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民間團體에서 하는 것같이 積極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弘報도 하고 開發도 하고 해서 뭔가 市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사랑받는 市廳이 되지 못하고 왜 맨날 뒤따라가고 이런 것을 하느냐, 그렇게 볼 때 新聞社라든지 기타 각 企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의 어떤 商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그 商業성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弘報를 하고 그러는데 왜 官에서는 더군다나 21世紀를 맞는 이런 시점이고, 이제 서울 定都 600년이 돌아오고 하는 의미있는 수도 서울에 뭔가를 劃期的으로 즉시로 소식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으로 必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弘報效果가 상당히 있고, 情報交換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市廳에 있는 소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鐵道廳이 하는 무슨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列車라든지 기타 敎育으로 인해서는 學校에 대한 어떤 入試問題라든지 일기예보라든지 기타 市民들이 아시고자 하는, 알면 편리하시다는 모든 情報를, 저희가 일단 전부 入

力을 하면서 조작을 해서 그때 그때 이렇게 알리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市廳에서 이런 弘報板이 있고 그 다음에 各區別로 하나씩 22개가 區別이 있으면서 例를 들어서 市廳에서 그런 어떤 모든 이런 生活情報를 全部해가지고 하면 그 쪽에는 수십만대 해가지고 區廳을 찾아오시는 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區民들도 바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現在로 봐서는 2대를 이번에 計上을 했고 이것은 상당한 情報交換과 效果가 있을 것으로 저희 實務線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趙貞順 副議長님, 양해하신다면 겸해서 제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計劃이 있다면 방금 趙貞順 委員님이 指摘을 하셨듯이 計上을 할 때 무슨 方法이 되었든 간에 計上을 할 때에 어디어디 계상, 몇몇 하에 어떻게 하면 얼마, 그런데 1項, 2項 중 3項을 택할 경우에 이 豫算이다, 또 設置豫定이 例를 들어서 지금 現在 급하게 했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 추적지는 어디어디 정도에 選定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았을 때 덜어놓고 홍보판을 製作한다고 얼마만한 크기인지 計算만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會議를 보다 生産的이고 機動的으로 하고 싶어서 얘기인데, 會社에 가서 履歷書를 提出하면 거기 전부 다 나온다고. 이름부터 시작하여 生年月日, 약력 다 보면 이 사람이 적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豫算審議를 하고 있는데 액수만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것이 과연 生産的인가 하는 問題는 이 자리에서 좀 다른 方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本委員이 要點으로 質問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弘報라는 것은 말이죠, 弘報를 專擔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視覺的 弘報도 있죠? 視覺的 弘報, 방금 지금 電光板같은 것은 시각적 홍보죠. 눈으로 直接 보니까 그렇지요?

○公報官 李相鎭; 네.

○金相復 委員; 그러면 聽覺的 弘報도 있죠? 귀로 들으면서 라디오라든가 푸른신호등같이 그것은 聽覺的 弘報도 있죠. 또 다음 시각적 홍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新聞이나 봐 가지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現在 視覺的 弘報가 必要하다 그런 뜻 아십니까?

○公報官 李相鎭; 네

○金相復 委員; 그러면 視覺的 弘報를 택한 理由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낫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울市廳이나 아니면 外廓地에 두 군데 設置한다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弘報를 볼 사람이 千萬市民 가운데 몇 명이나 된다고 % 한번 봤습니까? 그리고 홍보자판 속에 무엇 무엇을 記載하겠다는 것은 물론 具體的으로 안 나왔지만 그것을 본 市民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일기예보라든가 死亡者數라든가 알았다고 합시다. 市政의 급변하는 條例事項 같은 것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現在에 執行部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시각적 홍보로 통해서 만약에 傳達했을 때 전달받는 市民들이 그것을 본 事實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고 난 뒤에 얼마나 그것을 신뢰할까, 지금 現在 新聞紙上에 나와 있는 것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런 狀況에, 특히 또 視覺的 弘報라 하는 것은 기억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短點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구상한 저의가 뭐냐 이거요. 弘報를 전공한 팀이 그것 한

번 意見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弘報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說明합시다, 여기는 豫算을 하는 곳이니까.

○公報官 李相鎭; 네, 지금 現在 말씀하신 청각적, 지각적이 弘報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言論媒體를 통한 저희가 그 報道資料를 좀더 積極적으로 提供을 하고, 또 특집이라든지 企劃 이런 것으로 저희가 構想을 해서 積極적으로 弘報에 대처할 그런 計劃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적 관계는 아까 趙貞順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市民新聞, 기타 시보라든지 기타 刊行物 이런 어떤 冊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提供을 할 그런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現在 市政弘報板 問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視覺的 弘報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現在 저희가 대망의 21世紀를 맞고 600年을 맞으면서 아까 序頭에서 말씀드린 南北統一에 가는 이런 時點에서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각 州 市 道 여러 군데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市廳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市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든지 기타 모든 生活情報를 아주 象徵적으로 市에서 밝게 市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보느냐, 물론 이런 것까지 全部 통계숫자로 檢討가 되어서, 오랜 期間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런 計劃이 立案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序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 期間 준비를 못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우선 豫算編成이 지금 마무리

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2月初에 냈던 이런 事項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肯定的인 面, 또 이것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일어나는 효과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정말로 밝혀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자신을 하거든요.

○李汪烈 委員; 네, 李汪烈 委員입니다.

지금 너무 여기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全部다 여러 委員들이 사실 지금까지 質問을 백데이터에 관한 것을 要求하는 質問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려면 백데이터를 충분히 좀 내서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狀況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豫算審議를 다루는 立場에서도 補助資料를 要請하는 次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호나 자매결연 그 중요 3個 都市에서도 과연 市政弘報를 하기 위해서 電光板을 設置한 都市가 과연 몇 군데 있는지, 있다면 그 事例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이요.

그 다음에 他 電光板에 지금 보면 一般的으로 우리가 이 電光板이 아마 수십개도 넘게 서울市內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市政을 알리는 간혹 弘報內容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존 私設電光板 혹은 수입업체의 電光板에 지금까지도 의지를 좀 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充分하게 커버될 수 있는 事項이 별도로 이렇게 해야 당장 해야 될 事由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또 設置된다고 볼 때에 이것은 收益事業을 서울市 단독으로 2조를 다 運營할 것인지, 아니면 一般廣告를 의뢰받아서 혹은 거기에 使用料를 받아서 1日 몇

시간 정도 使用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運營計劃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設置期間이 제가 알기로는 6個月에서 긴 것은 한 8個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定都600年 맞이해 갖고 그 때 極大化를 시키는 것이 좋지, 당장 우리가 市政 살림살이를 하는데 不要不急한 것은 가능한 우리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次元인데 이렇게 이제 얼른 보면 55億원 중에 30億을 차지하니까 이거 사실 남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이러한 過程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自進 撤回할 用意가 없는지, 혹은 그러면 아까 意見들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우리나라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公報官 李相鎭; 네, 저희가 지금 事實은 이 案을 내놓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計劃이랄까 調查를 했습니다. 했는데 資料를 委員님들께 지금 못 내드린 것은 어떤 市方針으로 全部 調查해서 決裁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公報官室에서 저희가 이것을 算出基礎書를 조사했던 그런 事項이기 때문에 아마 못 내놓은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해서 이미 이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해서 지금 바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外國 事例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調查를 못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民間業體 電光板을 活用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調查를 했는데 서울市內 지금 전광판이 14개가 있습니다. 네온싸인은 제외됩니다. 14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第1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來年度에 公益廣告部에다가 저희가 依賴를 해 가지고 弘報할 수 있는 것은 좀 弘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民間들이 가지고 계

시는 電光板은 이것이 收益性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豫算으로 市의 것을 갖다가 廣告費를 물면서까지 市소식을 갖다가 알려주느냐.....

○李汪烈 委員; 廣告費를 안 물고 예를 들어 公益廣告니까 몇 커트 정도.

○公報官 李相鎭;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李汪烈 委員; 우리가 無料로 조금 한다.....

○公報官 李相鎭; 네, 그래서 廣告費를 支出하면서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李汪烈 委員; 그렇지요!

○公報官 李相鎭; 없고, 거기에 公益廣告欄에다가 저희가 要請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現在 公益廣告欄은 公益廣告協議會인가요, 公益廣告가 아마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折衷問題가 있어서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推進을 하려고 지금 計劃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推進을 하고, 저희가 지금 計劃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갑작스레 해가지고 졸속인 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서울市면 市에다가 어떤 메인으로 中央에다 設置를 하고 그 다음에 각 區에 하나씩은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수신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區廳이라든지 區의 중심에다가 設置를 해 놓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中央에서 全部 오퍼레이팅 하면 거기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發展的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이 94年 定都600年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市에서 中央에 하나 하고 하나에 벌써 2개를 計劃을 했습니다.

○李汪烈 委員; 아니, 意見을 물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不實하게 하는 過程에 앞으로 600年 정도의 해가 되려면 아직도 3年 남았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豫算年度 93年度에 해 갖고 한 8個月 정도 걸리죠, 그 設置期間이?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지금 不要不急한 事項이 아니다 이거예요.

○公報官 李相鎭;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李汪烈 委員; 이것을 과연 撤回할 用意은 없는 거예요?

○公報官 李相鎭; 아닙니다. 지금 李委員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에 대한 答辯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994年 600년이 되었을 때에 中央에 하나면서 각 區民들도 보실 수 있는 22個가 設置가 되는 것을 1994年으로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今年에 2개 정도는 꼭 設置가 되어야만 來年 後年에 모두 되어 가지고, 정말 94년에 그 600年 이상 된 都市가 지금 아마 15個 정도 되는 것 같은데 外國에 있는 이런 분들이나 기타 서울 市民의 이런 어떤 自矜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때에 일단 全體가 稼動이 될 수 있는 그런 時點으로 잡았다고 보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公報官님! 세부세칙을 잘 안하신 모양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 專門委員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 개를 안 하고 하나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하나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여하간 革新的이라야 하거든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임으로써 公報室이 現在 運營되고 있는 데에서 반대로 없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弘報함으로써 지금까지 해 나왔던 弘報 중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없애야 할 것.

○公報官 李相鎭; 없습니다. 지금.....

○孫允準 委員; 그러면 다 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公報官 李相鎭;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孫允準 委員; 그러면 이것을 다 곁해서 한다면 여기에 따라가는 1年中 電氣料負擔도 있고 앞으로 施設이 또 問題가 아니죠. 그것을 따라갈 附帶費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公報官 李相鎭;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린 것같이 그 기계 값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內容이고요, 거기에 따른 裝備 이런 것이 2億 6,400萬원이.....

○金相復 委員; 그래 가지고 승인된 것이 30億원!

○公報官 李相鎭; 그래서 이것이 30億원.

○金相復 委員; 이 件에 대해서 同僚委員님들 저기 資料가 준비되었으니까 다음 質問 答辯이 끝나고 난 뒤에 計數調整 時에 한번 다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李鍾學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마디.....

○孫允準 委員; 우선 얘기나 들어보죠. 아니 조금 얘기나 더 들어보지요. 얘기나 들어봐요.

○李鍾學 委員; 이 件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우선 우리 委員님들에게 諒解를 구합니다. 過法에 네온싸인을 設置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온싸인을 全部 또 撤去를 했습니다. 그 時期가 바로 언제냐, 過消費 追放運動이 벌어질 때에 바로 네온싸인이 全部 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國內적으로 특히 서울에서 過消費 追放運動을 한참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電光板이라고 하는 많은 電力을 먹고 維持費가 하나에 1億 3,000 이상 들어가는 이러한 裝置를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 電力이 모자란다고든가 이런 때도 좀 생각해 보셨는가, 그래서 그 節約政策에 너무나 違背가 됩니다.

그리고 現在 最小限度 여기는 豫算을 정하는 마당인데 그냥 한번 豫算 내봐서 通過되면 하고 通過 안 되면 來年에 또 한번 얘기해 보고,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最小限度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곳에는 할 것이고, 몇 사람 정도는 이것을 볼 것이고 그 效果는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은 좀 答辯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現在에 이 電光板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서울市에서 都市景觀課에서 取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이것을 볼 때에 拒否反應이 옵니다. 저것 一般人들이 하는 그 廣告物의 경우도 車를 타고 이렇게 가다 그것을 보면 눈이 아파요. 이것이 대개 原色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外國 사람은 先進國型인 原色을 좋아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색, 빨강, 노랑, 파랑을 지극히 싫어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電光板을 가지고 울긋불긋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個人들이 하는 것도 말려야 하는 이런 판국인데 서울市에서 過消費를 가지고 먼저 앞장을 서고 2개를 올해 通過시켜줄 것 같으면 區廳別로 뭐 하나 해준다, 22개 한다 이것은 너무나 現在 우리가 처해져 있는 過消費 追放運動과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公報官의 答辯을 要求합니다. 죄송합니다.

○公報官 李相鎭; 네, 李鍾學 委員님 말씀에 答辯드리겠습니다.

弘報電光板을 過消費와 연계가 되는 것은,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新聞이 없었을 때 오히려 어느 사람들은 新聞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없었을 때가 그런 자연상태가 더 편했다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市民들이 내는 稅金을 가지고 市民들이 市에

서 이루어지는 事項이라든지 市民이 편리한 어떤 소식을 갖다 빨리 보면서 알 수 있는, 결국 市民들에게 惠澤이 돌아가는 그런 事項을 예를 들어서 過消費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原色이 나오고 그래서 좀 눈이 피로하다 이런 것은 참으로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參考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許諾을 해 주신다면 좀더 고상한 色으로 해서 피로하지 않고 과연 市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한번 적극 努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學 委員; 電力消耗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節約運動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데, 來年度에는.

○孫允準 委員; 그런 것 豫算案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公報官 李相鎭; 電光板을 저희가 設置하려고 하는 立場으로서 물론 제가 그것까지 檢討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積極적으로 하고자 하는 立場이기 때문에, 電力消耗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設置하면 困難하다는 이런 입장으로는 깊은 檢討를 안 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개 어떤 效果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이것은 機種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運營費가 대개 얼마 정도 들어가며, 대개 이런 하나의 設置 쪽으로 저희가 檢討를.....

○孫允準 委員; 그럼 말이죠. 그것이 아직 現在 꼭 앞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급하지 않는 事項이면 우리 서울市 豫算도 없고 하니까今年度에는 豫算을 올리지 말고 來年度에 가서 한번 다시 깊은 研究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公報官 李相鎭; 아니, 그런데 例를 들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否定的인 側面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李鍾學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節約과 조금 다르다하고 말씀하신, 비난우려를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一般的인 官 弘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이런 면을 저희가 否定的으로 보았고요.

그러나 또 肯定的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져가는 어떤 行政機關, 또 공개되지 않은 어떤 그런 行政이다 하는 이런 것을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地方化, 開放化時代에 市에서도 積極적으로 公開된 이런 것으로 해서 市民들에게 바로바로 立案 施行되고 있는 이런 事項을 알려드리면서 또 便宜情報를 알려드리는, 이런 직접 弘報手段을 確保한다는 이런 問題와 그 다음에 어떤 特定事項 또는 特定 어떤 施策 이런 것을 갖다가 大衆들에게 동시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同時弘報 이런 면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重複이 됩니다만 市가 무엇인가를 市民들로부터 상징적으로 이제는 求心點이 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어떤 先進化할 수 있는 이런 市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거기에 積極적으로.....

○金相復 委員; 네, 됐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그 정도로 합시다. 여기는 그것하고 또 다르니까 計數調整時間도 있으니까 필요성, 당위성, 우리가 묻는 質問, 그 정도로 받고 또 現在 우리 나누어드린 油印物 參考해가지고 計數調整하기로 하고 다른 案件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또 質問 있으신 委員님 말씀하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歲入·歲出豫算案 14페이지에 보면 市政輿論調査 이래 가지고 3,668萬 1,200원, 또 市政輿論調査 手數料 이래 가지고 豫算이 3,240萬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區分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說明해 주십시오.

○金相復 委員; 答辯이 안 되면 다른 質問 또 하죠.

○公報官 李相鎭; 市政輿論調査 手數料 3,240萬원하고 그 밑에 있는 市政資料調査 1,000萬원하고의 그 差異點을 말씀.....

○朴善童 委員; 아니, 그런데 區分이 말이에요. 市政輿論調査書, 市政輿論調査 手數料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公報官 李相鎭; 네.

○孫允準委員; 거기 하나 算出基礎를 다시 한 번 說明해 주시죠. 需用費 및 手數料말이죠.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을 算出基礎를 다시 說明을 詳細하게 좀 해 주세요.

○公報官 李相鎭; 市政輿論調査 手數料는 저희 輿論調査要員이 설문지 1,500표본인데 이 한 표본당 3,600원이 설문지 거기에 대한 用紙代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지 價格을 한 표본당 3,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0표본으로 해서 計算이 되었고요, 그 밑에 資料整理要員은 이것이 일종의 人件費 일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萬 500원이 하루에 2명을 써 가지고 調査를 한다 그렇게 計算이 되어 있습니다.

○朴善童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提示해 주신 資料 10페이지에 物品購買費에 무비카메라 1億입니다. 또 비디오카메라 6,500萬원, 상세한 例를 들어서 우리가 納得할 수 있는 說明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機種이라든가 機種, 해봐야 몇 년씩 어떤 會社 이래봐야 잘 說明이 안 되기 때문에 放送局이나 이런 데서 VTR 같은 것 많이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런 것을 例를 들어 가지고 유사제품을 한번 說明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公報官 李相鎭; 영화카메라는 지금 現在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은 RE 후렉스 35mm 또는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는 무비카메라라고 일명 합니다만 이것이 1億으로 지금 저희가 正式的으로 pamphlet 해 가지고 價格調査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計上을 했고요.

○張精一 委員; 그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李汪烈 委員; 製品, 브랜드내의 브랜드 이름하고.....

○張精一 委員; 이름 해봐야 說明이 잘 안되니까 카메라가 여러 가지 種類가 있습니까?

○李汪烈 委員; 디멘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公報官 李相鎭; 네,

○金相復 委員; 뭐 그렇게 準備를 안 해 가지고 무슨 豫算을 하려고 해요? 도대체 말이야.

○張精一 委員; 컴퓨터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여기다 철회 놓으면 그게 더 간단한데 그게 바로 公報官室에서 弘報不足입니다. 지금.....

○金相復 委員; 그거 뭐 하는 사람은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분은 資料도 提出 못하고.....

○公報官 李相鎭;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는 BK 3-3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것이 製造會社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인데 이

것이 1臺 當 6,500萬원으로 저희가 調査가 되었습니다.

○張精一 委員; 그것도 그림 있어요?

○公報官 李相鎭; 네.

○張精一 委員; 그림 보여주면 아주 깊이 理解가 되잖아요.

○金相復 委員;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 네.

○金相復 委員; 그 件에 한해서는 지금 現在 복사되는 것을 이따가 다 配付해 가지고, 그런 式으로 합시다.

○張精一 委員; 네, 이것을 말이죠. 어차피 여기 모델, 우리가 뭐 BK 303 해보야 그것하고는 說明이 안 되니까 資料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하나 지금 複寫해 가지고 저희 委員들한테 配付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計數調整 때 參考를 하겠습니다.

○公報官 李相鎭; 네.

○李汪烈 委員; 質問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입니다.

說明書 10페이지에 일련번호 0020 市政關聯 民間人 海外活動旅費,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民間人들입니까?

○公報官 李相鎭; 지금 저희가 弘報委員이 열여덟 분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있는데 昨年에 方針이 서 가지고今年度 91年度 豫算에 이분들이 豫算策定이 되어 가지고 열여덟 분을 반반 나누어 가지고 아홉 분 아홉 분씩 해서今年도와 來年度에 東歐圈을 비롯한 海外研修視察을 보내도록 되어 가지고今年에 아홉 분이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 그 아홉 분에 대한 民間人 海外經費입니다.

○李汪烈 委員; 이것 꼭 해야 될 必要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自由總聯盟이나, 支援하는 곳도 꽤나 있는데요. 그 쪽으로 합하든지 別途項目으로 해서 이렇게 꼭 굳이 어떤 그 弘報委員

회에서 자기들이 만든 작품입니까, 아니면 이것 主管이 어디서 되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公報官 李相鎭; 지금 現在 市政弘報委員은 市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 全國에 弘報委員들이 있습니다. 서울市內에 열여덟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東歐圈을 갔다오는 것이 좋겠느냐, 물론 이분들의 要請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이 昨年 도에 高建 市長 계실 때에 弘報委員들이 懇談會를 하는 過程에서 東歐圈이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弘報委員들이 大衆演說을 하고 市民教育을 할 때에 反共과 勝共概念으로 이렇게 講演했던 時代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소련이 변해가고 있고 東歐가 변해가고 있고 北韓이 변해가고 있는데 물론 책을 보아도 그런 의미로 해서 要請을 해서 아홉 분이 豫算이 策定되어 今年에 갔다왔고 나머지 아홉 분은 2年차로 갔다 오기로 되어서 나머지 안 간 분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아홉 분에 대한 것이 1億입니까?

○公報官 李相鎭; 네, 그것이 아홉 분에 대한 豫算이 한 4,000萬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市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開發을 해 가지고 市廳職員들이나 이런 外國事例나 이런 것을 보러 나갈 때에 그 본 것이 國內에 있는 서울市民이나 아니면 國內에 있는 國民들에게도 이것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때에 同行取才로 나가는 이 言論社 同行記者분들의 그것도 같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孫允準 委員;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公報官 李相鎭; 어느 나라 선정요?

○孫允準 委員; 海外 보내는 사람들 選定基準이요.

○公報官 李相鎭; 그러니까 지금 弘報委員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 言論機關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言論機關에 저희가 公文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社別로 社事情에 따라서 우리는 못 보낸다 이래서 만일 競爭이 되어 가지고 豫算은 조금인데 많이 되었을 때는 저희 그 記者室하고 協議를 해서 出入을 올해 했다든지 또는 放送 두 분, 예를 들어 新聞 두 분이라든지 이렇게 協議를 가지고 選定을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하나만 質問을 하고.....

金相復 委員입니다. 우리 專門委員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檢討意見 '가'항에 보면 말이죠, 市政弘報物 製作 統合管理費 해 가지고 850億원을 計上을 하였는바, 前年對比 節減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專門委員님의 檢討가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격으로 30% 節減할 경우는 이렇게 되고, 또 40% 節減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또 그리고 執行部에서도 이렇게 節減할 수 있느냐고요. 수치상 20%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30% 낮추면 낮아지고 이것은 수치상 概念이고 市政弘報物 製作 統合管理에 우리 專門委員이 提示하는 대로 이렇게 낮추어서 節減할 수 있습니까, 이 項目에 대해서?

○公報官 李相鎭;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은 제가 조금 說明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아니, 節減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간단하게.

○公報官 李相鎭; 없습니다.

○金相復 委員; 없죠?

○公報官 李相鎭; 네.

○金相復 委員; 네, 알았습니다.

○李汪烈 委員; 뜻이 그러니까 저는 이 統合管理費란 이 뜻이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公報官 李相鎭; 各 部署에서 弘報物을 전부 만들었거든요. 각 部署에서 그러니까 企劃管理室, 産業局, 環境局 이런 데서 弘報物을 전에는 어떤 審査制度가 없이 그냥 方針만 나오면 자기들이 막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規格도 다르고 지질도 다르고 內容도 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안 되겠다, 公報官室에다 弘報物審議委員會를 만들자, 만들어 가지고 지금 審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各 部署에 있는 이 豫算을 公報官室에다 다 넣어 가지고 거기서 要請이 오면 審査를 그만큼 떼어 줘 가지고 좋다, 이것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現在 91年度에 10億원이었는데요, 92年度에 이것을 8億 5,020 몇 %로 節減을 해서 8億 5,000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제 당장 청소년사업관에서 지금 와서 抗議를 하는 것이 今年度에 1億을 가지고서 푸른 교실이라는 靑少年雜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척 좋더라고요. 그것을 갖다 5萬部를 만들었는데 서울市の 전체 있는 各 學校에서 지금 그것이 대단히 인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10萬部를 만들려고 2배 豫算要請을 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2억원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10억원짜리를 2億 3,000萬원이 깎아졌는데 오히려 당신들은 1億원이었으면 지금 한 7,000이나 8,000밖에 못 나갈 텐데 이걸 갖다 2億원을 거꾸로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金相復 委員; 더 이상 質問 없으시면 다른 日程으로 넘어가죠.

○委員長 權會榮; 더 이상 質問 없으시죠?

그러면 計數調整에 대해서는 내일 13日 綜合해서 우리가 議

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公報官室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고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4時 10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3. 1992年度豫算案審查(서울市立大學校)

○委員長 權會榮; 議事日程 第3項 서울市立大學校所管 1992年度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事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尹佑吉; 事務局長입니다. 豫算 提案說明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학교 總長님께서 오셔서 委員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내일 全國大學 總長會議가 釜山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午後에 부득이 釜山에 가시게 되어서 인사말씀을 못 드리게 된 것 諒解를 드립니다.

그러면 92年度 豫算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尊敬하는 權會榮 文化教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저는 오늘 저희 市立大學校의 1992年度 豫算案을 提案하고 새해의 大學運營方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서 저희 大學校에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支援과 鞭撻에 眞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大學校는 國內 唯一의 公立大學校로서 學問의 심오한 理論과 運營方法을 教育, 研究하며 지도자적 人格을 도야함으로써 國家 社會의 發展에 貢獻함과 아울러 市民의 生活과 文化의 향상에 寄與함을 教育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教育目標의 달성을 위해 특히 92年度에 計劃하고 있는 豫算事業 중에서 主要部分만을 要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教授研究 및 教育水準의 질적향상을 위해 제반교육 機資材의 확충과 勉學雰圍氣 刷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教育部에 大學行政業務 電算化計劃에 의한 全國 國立大學校 圖書館 學術情報 電算網計劃과 연계하고, 校內學事行政의 능률화 및 교육연구활동에 효과적인 支援을 위해 總 7億 3,900萬원이 所要되는 大學行政 및 圖書館業務 電算化計劃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教育部의 대학실험실습설립 기준령에 의한 確保率이 22% 수준인 우리 대학교 實驗實習 機資材 確保率은 51%인 서울大學校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最小限 平均 39%인 地方國立大學校와는 같은 水準으로 提高하기 위해서 92年度에 공대, 문리대 교양과정부에 3億원을 支援하고 新設 尖端技術學科인 제어계측학과에 2億 1,000萬원을 投入하여 그 確保率을 26%로 신장시킴으로써 基礎技術分野의 정상적인 授業進行과 내실있는 實習中心 강의로서의 轉換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6,900萬원의 學術研究造成費를 교수들에게 支援하여 대학의 主要機能인 研究活動을 통한 학문적 능력배양과 教育水準向上을 도모하고, 教育部의 大學設置基準승에 의한 최저기

준장서량을 確保하여 대학교육과정에 필요한 圖書를 適期에 備置함으로써 教授研究活動 및 學生學習活動을 적극 支援할 計劃입니다.

둘째, 教育施設의 擴充 및 改善의 努力을 하고자 합니다. 비좁은 實驗實習空間과 實驗實習機資材 설치장소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制御計測 및 精密機械工學, 尖端技術學科의 新設 등으로 인한 신규설비수요에 대비하고자 總 事業費 31億 2,900萬원을 投資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796坪에 철근콘크리트建物로 今年부터 93년까지 3個年 繼續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工科大學 實驗室棟 新築工事費 2차년도 工事費로서 15億 600萬원을, 교내 연못정화를 위한 多目的 심정호 설치, 또 東大問區에서 推進하고 있는 學校進入路 擴張工事 竣工에 따른 專門實習室 이전신축, 그리고 교내하수도 整備工事 등에 총 4億 2,400萬원의 豫算을 각각 投資하여 저희 大學校에 不足한 教育施設을 擴充하고 老朽施設을 改善하고자 합니다.

셋째, 市民과 市政을 위한 大學運營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7년에 시작하여 매년 定期的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원에 시민강좌를 擴大 實施하고, 서울市 行政發展을 위한 세미나 및 대도시행정세미나 등 각종 學術活動을 活性化하여 市民의 平生教育和 文化向上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市政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등 市民의 大學으로서의 위상정립에 더욱 努力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報告드린 主要豫算事業 推進計劃과 一般豫算 編成基準에 따라 저희 市立大學校가 編成 要求한 92年度 歲入·歲出豫算의 규모를 계수적인 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歲入豫算은 15億 1,977萬원으로 구내도서관 및 이발소의 재산임대수입 849萬원, 제증명 발급에 따른 手數料 1,053萬 8,000원, 入學金 및 授業料 입시전형료 수입 14億 9,649萬원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91年の 11億 1,027萬원보다 36.8%가 늘어난 44億 950萬 7,000원이 增額되었습니다. 歲出豫算은 總 127億 1,600萬원으로서 일반경상비가 89億 7,200萬원이고 教育施設 擴充 등에 소요되는 投資事業費가 37億 4,400萬원입니다. 이러한 總額 127億 1,600萬원의 歲出豫算을 성질별로 區分하여 說明드리면 급여, 제수당, 금융비, 또 福利厚生費 등의 人件費가 56億 2,700萬원, 機關을 運營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需用費 및 手數料,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基本的 관서운영비가 22億 9,700萬원, 성적우수자에 대한 獎學金과 教授研究補助費 등 경상비가 9億 2,300萬원, 전산기기 확충 및 도서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또 공대 실험실동 신축 등 施設投資費가 37億 4,400萬원이며, 마지막으로 入試 및 論文審査를 위한 소요경비 1億 2,500萬원을 計上하였습니다.

이러한 92年度 歲出豫算은 91年度에 비해 29.8%인 29億 2,300萬원이 增額된 것으로, 이는 92年 서울特別市 一般會計 總 歲出豫算 3兆 1,631億 4,000萬원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91年度에 비해 0.01% 增加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主要 增加內容을 살펴보면 이미 앞서 설명드린 教授研究 및 教育水準의 질적향상을 위한 教育施設의 擴充과 教育與件의 개선 등 당면문제의 解決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所要經費 增額으로서 공과대학 실험실동 2차년도 공사비와 전산기기확충 購入豫算 및 人件費의 인상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저희 大學에서 編成 요구한 92年度 歲出豫算은 地方化時代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市民들이 저희 大學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적극 부응하고 저희 大學校를 굴지의 綜合大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當面問題를 解決하는데 필요한 最小限의 豫算으로서 이를 위한 여러 委員님들의 깊은 理解와 支援이 있으시기를 거듭 當付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年度 저희 市立大學校의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총괄적인 提案說明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敬청하여 주신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永國; 1992年度 一般會計 서울特別市 豫算案中 서울시立大學校 所管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2年度 一般會計 서울特別市豫算案中 서울시立大學校 所管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委員長 權會榮; 다음은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側의 答辯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와 答辯方法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允準 委員; 孫允準 委員입니다. 教授協議會에서 사용되는 備品은 學校 內에서 使用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教授協議會는 좀더 研究를 해서 그 備品은 자체 내 備品을 쓰시는 方法

으로 하고 購入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結婚禮式場으로 活用한다고 그러는데 年 17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月 17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禮式場을 사용하는 市民들에 대한 負擔金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事務局長 尹佑吉; 教授協議會의 비품관계는 豫算에 사실상 編成時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꼭 여기에 教授協議會에서만 쓴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學校의 主要 補職教授들이나 總長室에 비상시에 비품을 購入한다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또 事務處 機能의 교수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豫算 編成上 技術的으로 이렇게 나열했을 따름이지 꼭 이것을 教授協議會에서만 쓴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에서 諒解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그 件에 대해서 더 質問해 보겠습니다. 보통 教授協議會 비품구입이라든가 大學일 경우에 그렇지만 이게 또 大學院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렇습니다.

○金相復 委員; 他 大學에 보면 大學院生들 가운데 기증하는 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市立大學은 잘 안 됩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잘 되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그럼 여기서 우리 專門委員이 指摘한 대로 이 計數를 분명히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參考하기 위해서 지금 現在 1,200萬원이죠?

○事務局長 尹佑吉; 네.

○金相復 委員; 1,200萬원 가운데 이거 조금 어떻게 計算을

하니까 半 정도 節減할 수 있다라는 專門委員의 意見에 同意가 됩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제가 조금 전에.....

○金相復 委員; 전혀 안 됩니까? 조금 同意가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간단하게.....

○事務局長 尹佑吉; 꼭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되겠지만.....

○金相復 委員; 아! 우리는 參考할 거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네, 저희들이 豫算을 計上할 때 미리 이러한 事案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名分만 이렇게 세워놓았지 단순히 編成上의 技術的인 것을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실제 이 費用은 우리 학교 全體에서 必要하면 쓰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議會가 꼭 손질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만.....

○金相復 委員;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이거지요?

○事務局長 尹佑吉; 약간의 編成上의 技術이라고만 諒解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그러니까 專門委員, 이 件에 대해서요, 이 件에서 專門委員은 이 件에 대해서만 檢討한 거지요, 그렇죠?

○孫允準 委員; 여러 가지 參考를 했습니까?

○專門委員 鄭永國; 네, 여러 가지를 지금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 審査할 對象은 이런 것이 審査할 만한 대상이다 생각해 가지고 報告를 드린 것입니다.

○金相復 委員; 네, 알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市民利用, 開放해 가지고 無料禮式場 사용한 것 있죠? 年 17回입니까, 月 17回입니까?

- 事務局長 尹佑吉; 年 17回입니다.
- 孫允準 委員; 그러면 적조. 弘報가 덜 된 것이죠, 그것은.
- 事務局長 尹佑吉;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結婚이 많은 시즌에는 좀 더하고 그렇습니다. 봄, 가을에는 조금 結婚이 많으니까 그 때는 조금 더 하고.....
- 李汪烈 委員; 수고 많습니다. 豫算案의 28페이지 일련번호 0115番, 外來講師料 6億 3,000萬원, 특히 外來講師라 하면 本校講師 이외에 바깥에서 出講하시는 분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렇습니다.
- 李汪烈 委員; 그런데 밑에 거기 보면 서울시 行政發展을 위한 特講, 또 그 다음에 보면 外國語 語學院 講師手當, 또 그 다음에 보면 야간강사료, 時間外는 이것은 職員입니까?
- 事務局長 尹佑吉; 네.
- 李汪烈 委員; 그러면 外來講師料 이것이 다 包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외에 이렇게 講師料가 몇 가지로 이렇게 區分이 된 理由가 어디 있는지요? 또 項目設定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事務局長 尹佑吉; 그것은 外來講師料는 순수한 學生들의 시간에 들어가서 講義上 專任講師 이것은 正式講義手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500원이 다른 學校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해서 今年度에 1萬원 정도로 올리기로 豫想을 한 것입니다.
- 李汪烈 委員; 다른 學校 教授님이.....
- 事務局長 尹佑吉; 學校 教授가 아니고 우리 外來講師 중에 무슨 專門分野에 대해서,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時間講師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手當입니다. 1時間當 手當입니다.

○李汪烈 委員; 그럼 서울시 行政發展을 위한 特講도 역시.....

○事務局長 尹佑吉; 이런 것은 이제 특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講師라기보다는 무슨 專門分野에 있는 분들을 招請해서 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正規科目 외에 그런 것 할 때는 5萬원 정도는 주어야 와서 講義를 하지 그 사람들을 우리 專任講師와 같이 1萬원 주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5萬원 정도 計算을 했습니다.

○孫允準 委員; 專任講師와 招請講師는 이와는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事務局長 尹佑吉; 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강사도 5萬원, 그것은 어느 곳에든 다 합니다.

○李汪烈 委員; 별도로 이렇게 4가지로.....

○事務局長 尹佑吉; 네, 예를 들면 委員님들이 무슨 地方議會 行政 강의하실 때 우리가 招請하시면 그래도 5萬원 정도는 드려야지, 5萬원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서로의.....

○李汪烈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네요.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國際交流關係에 있어서요. 2,200萬원, 敎員海外研修 實施 있지 않습니까? 2,200萬원으로 策定이 되었죠?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렇습니다.

○李汪烈 委員;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月 얼마로, 이 資料 갖고는 이것이 計算이 안 되네요.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李汪烈 委員; 이게 몇 달러를 어느 정도.....

○事務局長 尹佑吉; 네, 보통 우리가 長期海外 敎育訓練이 보통 2年입니다. 그리고 短期가 6個月인데 보통 1個月에 한

130萬원 정도 준다고 보면 됩니다.

○李汪烈 委員; 몇 달러, 이거 어차피 달러로 計算해야 되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달러로 計算하면 좀 複雜해질 것 같아서 제가 대강 우리 돈으로 換算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한 달에 우리가 公務員들이 海外에 가서 滯留費가, 한 달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 130萬원 정도 됩니다. 우리 政府에서 推進하는 單價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策定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6個月 해 가지고 2,200萬원입니다. 그것은 豫算編成指針基準에 맞추었습니다.

○孫允準 委員; 市立大學校 자체 내에서 決定한 것이 아니죠?

○事務局長 尹佑吉;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어디 가서 보아도 다 똑같습니다.

○金相復 委員; 그럼 專門委員 檢討報告 가운데 교내건물청소 2회 그것을 하지 않고 1회 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교내청소는 주로 위의 유리창청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봄, 가을에 한두 번은 해야지 한 번 하면 유리창이 더러워서 도저히 지금 우리 학교 周邊環境의 리듬에 맞춰서.....

○金相復 委員; 5번 하면 더 좋죠.

○事務局長 尹佑吉; 네, 한 번 두 번은 1년에 봄, 가을에.....

○金相復 委員; 두 번은 최소다 이것도 削減이 안 되겠다 그것이죠?

○事務局長 尹佑吉; 그런 것은 그대로 좀 反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委員님.

○李汪烈 委員; 이러다 보니까 다시 豫算案에 31페이지를 보면 國外旅費 해 가지고 아주 조금 詳細히 나와 있는데 國際交流 및 海外研修費 해서 곱하기 1회로 나왔어요, 1회.

○事務局長 尹佑吉; 1회요?

○李汪烈 委員; 네, 그래서 1회가.....

○事務局長 尹佑吉; 그래서 그것을 長短期로 나누지 않고 그러면 또 長期 얼마, 短期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합해 가지고.....

○李汪烈 委員; 여기에다 해 놓으면 理解가 빠르죠.

○事務局長 尹佑吉;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汪烈 委員; 그리고 事務用品關係도 여기에 다 나타났습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事務用品 關係는 우리가 거의 다 해마다 하는.....

○李汪烈 委員;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일변하다 보니까 指摘이 되었는데 방명록이다, 앨범이다, 무슨 뭐 볼펜이다, 무슨 뭐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事務用品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것은 안 사는지 혹은 딴 데 包含이 되었는지 죽 보다 보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38페이지에 보면요.

○李汪烈 委員; 38페이지요?

○事務局長 尹佑吉; 네, 事務用品 표가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그러면 이것이 50萬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1년에?

○事務局長 尹佑吉; 네, 꼭 1년에 50萬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다 이것은 우리 本廳에서도 豫算課에서 豫算上程할 때 우리 學校 規模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이보다 많이

要求했는데 전체 事務用品費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李汪烈 委員; 아니, 理解가 안 간다 이것이에요.

○事務局長 尹佑吉; 결국은 이런 것 하다보면 다른 데서 더 불편이다, 백지다 이런 것 하는 것 調整이 된다고 봐야죠.

○李汪烈 委員; 그렇게 얼렁뚱땅 우리 事務局長님이 워낙 經驗이 많으셔서 그런지 너구리같이 설설설설 이렇게 잘 하시는데.

○事務局長 尹佑吉;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李汪烈 委員; 그리고 그래도 이것이 한 달에 이 정도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事務局長 尹佑吉; 그 밑에 보면 말씀입니다. 總務課 事務用品 및 修理 해가지고 789萬 4,000원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그런데 項目이 別途로 칸이 다르잖아요.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總務課 事務用品이 또 다르고 위의 것 事務用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물론 도서관에다 大學校나 大學院 같은 데에도 要求하는 것을 죽 이렇게.....

○李汪烈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백데이터를 물론 여기 와서 指摘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說明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部分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事務局長 尹佑吉; 네, 앞으로는 각별히 內容을 明示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汪烈 委員; 네, 어쨌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事務局長 尹佑吉; 네.

○李載震 委員; 네, 李載震 委員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市立大學校 財政自立도에 있어서 90年度는 12.5%, 91年度는 11.4% 이것이 그 빈약한 豫算 가운데에서 92年度の 自立度는 어느 정도 豫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學校運營을 거의 依存하고 있는 自立度を 높일 수 있는, 물론 豫算審議하는 過程이지만 方案도 研究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電氣通信施設 補修費 중에 1,000萬원에 舞臺裝置 施設의 그 具體的인 內容이 무엇인지 그 問題하고, 아울러서 또 運動施設 補修費로 테니스코트 3면을 補修하는데 1,550萬원이 策定되어 있는데 그 具體的인 施設工事 內譯을 밝혀주시고, 또한 開放해서 學生들이 얼마만큼 使用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機關運營 辦公費 支給에 있어서 大學院長 등 55名에 대하여 月 20萬원씩 策定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選定範圍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昨年에 비해서 燃料費가 234萬원이 더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理由를 알고 싶어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만 校內淸掃問題에 있어서 淸掃用役을 지금 市友會에서 하고 있다죠?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렇습니다.

○李載震 委員; 굳이 옛날에는 市友會에서 우리 自立을 못하니까 많은 豫算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혹시 市友會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特定團體를 禮遇하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淸掃用役을 一般競爭入札에 부쳐 가지고 정당하게 淸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隨意契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事務局長 尹佑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李載震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을 저희들이 잠깐 答辯을 할 時間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네,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權會榮; 朴善童 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朴善童 委員; 朴善童 委員입니다. 우리 專門委員 報告에 의하면 공과대학 실험실 新築에 대하여 工程表에 맞는 豫算額이 策定된 것인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說明을 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尹佑吉; 工科大學校 實驗棟 建立은 3個年 事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5億으로 해서 着工을 하고, 그리고 來年度에 10億, 그 다음年度에 또 5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年次別 事業計劃에 딱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豫算이 더 있었으면 來年度에 다 마쳤으면 좋지만 市の 財政形便도 어렵고 해서 3個年 繼續事業으로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또 公正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善童 委員; 잘 알았습니다.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實驗實習機資材에 대해서 조금 여쭙어 보겠습니다. 實驗實習機資材 購入費가 昨年度 2億 5,000萬원에서 今年에 3億원으로 5,000萬원 增額이 되었는데 지난번 行政事務監査時에 일부 指摘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實驗實習費라는 것도 거의 지금 30%에서 약 한 50% 정도가 使用을 안 한 그러한 過多計上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實驗機資材 같은 것은 충분히 新機種을 많이 導入을 해 가지고 備置를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것을 購入해 놓고 그것을 效率性있게 그렇게 實驗實

쪼삐에 活用이 우리 市立大學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判斷할 수밖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物件만 確保를 해 놓는 次元이 아닌 실제로 그것이 實驗實習敎育에 유리한 方向으로 해 주실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는 그냥 總 金額만 나왔는데 이것은 追後라도 더 중요한 機資材 같은 것은 明細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提出해 주시고.....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그 다음에 電算化事業에 따르는 豫算을 編成해서 電算器機 1臺 해 가지고 여기 전부 보면 今年度 7億원입니다. 그렇죠? 7億 3,900萬원인데 여기 보면 現在 電算人力에 대한 人件費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機種에 대한 것이 왜 이런 機種을 選定을 일단은 內部的으로 方針을 굳히신 것으로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機種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렇습니다.

○張精一 委員; 그러면 學校에서 우리 市立大學에서 이 機種이 가장 適合했다 하는 그러한 當爲性, 妥當性을 한번 補充說明을 해주십시오.

○事務局長 尹佑吉; 네, 張精一 委員님 質疑하신 內容의 趣旨를 잘 알겠습니다. 우리 學校에 實驗機資材 같은 것은 제가 아는 한 사가지고 별로 사장시킨 事例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電算分野에 대해서는 委員님 여러분에게도 質疑하신 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電算所長님이 같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電算所長님이 그 分野에 대해서 專門的인 知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電算所長님께서 電算分

野에 대한 것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張精一 委員, 꼭 說明 받아야 됩니까?

○張精一 委員; 機械값이 순수하게 두 臺를 빼고 機械값만 얼마를.....

○金相復 委員;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電算所長 魯勝容;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立大學校 電子計算所長 魯勝容입니다. 現在 電子工學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大學校 教育環境을 많이 도와주시는 委員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質問하신 電子計算機가 7億원이라는, 人件費는 包含되지 않고요. 또 MV 3萬이라고 하는 것도 이 機種으로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MV 3萬이라는 어떤 스펙이 있습니다. 그 스펙에 基準해 가지고 이 정도의 스펙을 들여와야만 最小限度 저의 大學의 어떤 教育環境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李汪烈 委員; 容量으로 얘기하십시오.

○張精一 委員; 그것 한 臺가 7億원이라는 소리고 圖書館 電算化에서는 3,900萬원짜리 두 臺 해가지고 購入費만 7億 3,900萬원?

○電算所長 魯勝容; 圖書館에서는 아마 現在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PC급이라고 합니다. 그쪽 컴퓨터를 購入하고요, 저희는 소위 호스트 컴퓨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중형컴퓨터인데 過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750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750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委員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만 요즘 매스컴 新聞紙上에 많이 나온 컴퓨터하고 比較하게 되면 能力이 요즘 AT IBM AT·XT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 李汪烈 委員; 비트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비트.
- 電算所長 魯勝容; 저희가 購入하고자 하는 機械는 32비트입니다.
- 李汪烈 委員; 32비트!
- 電算所長 魯勝容; 네, 그러니까 대형은 64비트인데요, 32비트짜리 중형컴퓨터입니다.
- 李汪烈 委員; 중형이 32비트밖에 안 됩니까?
- 電算所長 魯勝容; 네, 요즘은 32비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 李汪烈 委員; 圖書館用이에요?
- 電算所長 魯勝容; 圖書館도 요즘 워크스테이션도 32비트죠. 32비트라고 해도 요즘 386이라는 컴퓨터가 아마 新聞紙上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32비트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價格이 천차 만차냐, 즉 컴퓨터라는 것이 원래 값싼 것은 30萬원짜리부터 200億 價格까지 있습니다. 事實은 그러면 요즘 最近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크레이슈퍼컴퓨터 같은 것은 저희 科學技術處에서 昨年인가 購入했던 것은 200億원이 됩니다, 그 컴퓨터만. 그러나 같은 컴퓨터라도.....
- 李汪烈 委員; 그것은 비트로 얼마입니까? 몇 비트짜리입니까?
- 電算所長 魯勝容; 방법이 이제 32비트라기보다 그것은 방법이 8프로세스라고 해 가지고요, 병렬로 이제 일을 進行하니까, 같은 32비트라도.....
- 金相復 委員; 專門성이 없어서 도저히 理解가 안 되는군요. 우리 委員님들 이렇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李汪烈 委員; 이럴 때에 현재 學校의 行政事務容量하고 앞으로 몇 年度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한번.....

○電算所長 魯勝容; 저희가 X750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7個學科에서 학생 86年度 당시 900名 이었습니다, 이 電算機를 利用하는 學生 人員이요. 그런데 지난 5年 사이에 컴퓨터가 이용하는 소위 마인더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많이 擴散되고 있습니다. 또 大學院 그러다 보니까 現在 91年度에 1,780名, 즉 900名에서 약 한 97.7%가 컴퓨터가 利用環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X750 종래의 機種 가지고는 포화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저희 電算所에서 주로 하는 일 이.....

○李汪烈 委員;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今年度에 몇 명 정도는 이것으로써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張精一 委員; 이 機種을 그런데 選定을.....

지금 現在 機種은 있는데 容量不足으로 이것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電算所長 魯勝容; 그렇죠!

○張精一 委員; 그러면 이것이 바뀌었는데 이 機種에 대한 機械 自體에 대한 수명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學事業務가 늘어나는 데 대한 앞으로 몇 년간의 期待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容量, 機械 自體는 10年 사용이 可能한데 이 機種選定이 잘못되면 2, 3年後에 例를 들어서 우리가 醫科大學도 생기고 어디도 생기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機種은 수명은 되어도 못 쓴다고 보면 問題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勘案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電算所長 魯勝容; 네, 저희가 그거 저희 大學 電算關聯 教授님들하고 여러 會議에서 대개 이 정도의 基準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 機種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된 資料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95年度 지금 올해 95年度까지는 이 機械 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이제 퍼스널컴퓨터 外에 각 單一學科나 單一大學에서 소위 워크스테이션이 獨立的으로 要求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形成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金相復 委員; 자, 우리 그렇게 이해합시다. 市長이 本會議 答辯할 때 文化에 대해서 돈으로 計算하지 말자고, 그러면 技術開發費에 대해서 돈으로 計算할 수 없잖아요?

○李鍾學 委員;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7億원을 들여 가지고 95年度에는 풀로 차서 못 쓴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를 活用하는 方法은 人件費보다 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림잡아서 얘기를 해도 여기에 所長 한 사람에 천공 들, 프로그래머 넷, 1級에다가 몇 사람만 더 있게 되면 그냥싼 32비트짜리 그러한 것을 갖고도 충분히 學事, 給與, 수납 업무 이런 電算處理가 가능한데 7億원을 들어서 4年뿐이 못 쓰는 것이 이것이 經濟的이겠습니까?

○電算所長 魯勝容; 저희가 X750도 앞으로 5年 이상을 더 使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現在 가지고 있는 것도요, 研究支援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購入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컴퓨터의 速度가 참 重要합니다. 計算速度가 요즘 教授님들이 저희 電算所에 항시 하는 얘기가 計算速度가 떨어지니까 計算速度가 向上된 것을 要求하고 있고요. 그리고 7億원이라는 것이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購入하게 되면 附帶施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오는 터미널을 비롯해서 또한 향온향습장치 이러한 附帶施設을 添加하니까 7億원이지만, 순수한 컴퓨터 알맹이 하나만 7億원이

아닙니다.

○張精一 委員; 좋습니다.

○電算所長 魯勝容; 教育的인 차원에서 아마 우리 敎務處長님께서 나오셔서 가지고 委員님께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李汪烈 委員; 저 質問이 있습니다. 저기 안에 41페이지에 客員敎授 賃貸아파트 使用料, 지금 客員敎授가 어떠한 概念에서 客員敎授 시스템을 마련하셨는지, 임대아파트가 外國에서 오시는 분인지 地方에서 오시는 분인지, 이런 의미에서 說明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尹佑吉; 저희 學校 임대아파트가 목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客員敎授라는 것은 주로 外國에서 오신 國籍도 外國人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國內敎授들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外國人 敎授로서도 우리가 內部的으로 基準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꼭 아파트를 주어도 무관하게끔 妥當性이 있다 했을 때 提供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함부로 주면 그 다음에 내보낼 때 어렵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 內部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해서 賃貸해 주고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임대아파트가 한 채입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세 채가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세 채.

○事務局長 尹佑吉; 그것은 그렇게 諒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제가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이게 豫算審議니까 52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심정호 연못에 보면 環境改善事業으로 水質改善이 시급하다 그러는데 9,000 萬원 計上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저희들도 지

난번에 한번 갔을 때 그 옆에서 구경도 하고 했을 때 꽃도 있고 했는데 9,000萬원으로 計上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說明을 해 주세요.

○事務局長 尹佑吉;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오셨을 때 學校에 심정호를 한번 보셨지만 웬일인지 그 土砂가 자꾸 흘러서 물이 전부 벌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公害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아주 물이 벌겁게 되어 가지고 외관도 보기 싫고 또 學生들이, 물이란 것은 색깔이 원래 파란 것이 물 색깔인데 이렇게 벌겁게 되어 가지고, 理由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럼 안에 土砂하고 鐵分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물이 벌겁게 되어서 이것을 물을 흐르도록 만들면 問題가 解決될 것 아니겠냐, 물을 그 옆에 제일 쉬운 方法은 그 위에 다른 지하수를 퍼 올려서 모터로 물을 유입시켜서 일정 수면 이상 흘러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안 그러면 또 그보다 더 좋은 方法이 새로 있는지, 그래서 우선 今年에 豫算을 反映해 가지고 우리 학교 教授님들하고 專門적으로 研究를 해 가지고 심정호를 맑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0萬원 豫算이 所要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精一 委員; 그 差額이 9,000萬원, 추상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그것이 만일에 남는다면 또 다른 施設費에 使用하도록 豫算이 浪費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汪烈 委員; 제가 또 하나 質問하겠습니다. 李汪烈 委員입니다.

49페이지의 物品購買費에서 항목은 100번입니다, 일련번호. 貨物이라 하셔서 밴그레이싱 6인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貨物을 800萬원 한 대를 사시면서 승합차를 사십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승합차가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앞에 運轉席이고 뒤에 그.....

○李汪烈 委員; 완전히 貨物을 사시면 특별히 이것을 사시는 理由가 있습니까? 貨物은 貨物用이 따로 있을 텐데.

○事務局長 尹佑吉; 완전히 貨物은 아니고 앞에 밴트럭 비슷하게.....

○李汪烈 委員; 화물식용으로.....

○事務局長 尹佑吉; 네, 그렇게 조금 전에 李載震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 제가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委員님께서 學校의 財政自立度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來年度의 財政自立度 問題를 한번 따져보니까 11.9% 線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財政自立度라는 것이 결국 歲入에 대해서 歲出과의 비교에 不過한데 저희 學校 歲入이 늘어나는 方案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등록금 인상하든가, 안 그러면 학생을 增員하든가 이런 두 가지 方法이 있는데 學校實情으로 보아서 公立大學校로서는 登錄金을 私立大學校와 같이 마구 올릴 수도 없는 立場이고, 또 學生 增員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文教部에서 教育部에서 增員承認이 나와 되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財政自立도가 좋도록 하고 싶지만 이런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諒解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淸掃用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市友會가 현재 淸掃專門業體로서 市友會에서 條件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고층에 청소 유리창하고 또 교내에 소독하는 이런 양쪽 機能을 갖추도록 市友會에서 人員도 確保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市友會에 用役을 주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市友會보다도 더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공개를 하든지 다른 方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條件을 갖춘 業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市友會에 特惠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죠, 누가 보든지. 그러니까 條件보다는 學校에서 모든 일들을 率先垂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實質적으로 市內 어떤 業體가 되었든지 條件을 갖춘 業體에 一般競爭入札을 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市友會에서 그런 것을 갖추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市友會에 그런 業體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하나의 市友會에서 그 業體를 들여보내 가지고 거기서 무슨 利潤을 약간 받아서 市友會를 運營하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問題를 저는 그 團體에 주는 것보다는 확실한 用役團體에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孫允準 委員; 그건 앞으로 是正 檢討하시죠. 왜냐하면 市友會는.....

○金相復 委員; 다음 그 研究하면 되겠죠? 지금은 바쁘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제가 그것은 檢討하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학교 같은 데는 公開적으로 用役會社에 公開入札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方法으로.....

○事務局長 尹佑吉; 이 問題는 저희들이 더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테니스코트장 보수 3면 하

는데 왜 그 정도 豫算이 所要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現在 저희들 學校 學生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코트장이 6면입니다. 그것이 테니스코트장이라는 각종 運動施設 중에 아주 管理하기에 힘이 들고 또 費用이 많이 드는 그런 管理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보수 안 하면 또 들어내고 뭐 깔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 豫算 3면 하는데서 요즘 6면인데도 3면 밖에 너무 많이 豫算이 計上되었는가 싶어서 3면만 하고, 또 來年度에 3면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豫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燃料費가 줄어든 事由를 말씀하셨는데, 昨年까지는 昨년에 本館이 新築됨으로 해서 燃料費가 LNG로 대체하고 또 本館에서 다른 뭐 석유난로다 이런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燃料費가 節減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무대시설 하나 하는데 1,000萬원이 왜 所要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무대시설이 첫째 대강당에 現在 放送設備 같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음향설비하는데 한 300萬원이 所要되고, 그 다음에 무대장치 스크린 같은 것 만들고 그 다음 또 무대조명장치를 하다보니까 1,000萬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봐서 豫算을 計上했습니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孫馥 委員; 質問 하나 드리겠습니다.

李載震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가운데 財政自立度問題에 대해서 事務局長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두 가지 側面만 얘기를 하셨는데 學生增員問題나 入學金, 登錄金 引上問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定員도 學生定員도 增員 안 되고 授業料도 인상 안 되는 側面에서 자꾸 施設만 더 고가로 할 必要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側面에서 현재 歲入部分

에 있어서 入學金하고 授業料가 他 學校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內譯을 알려 주시고, 서울大學校나 또는 私立大學校 기준을.....

○事務局長 尹佑吉; 私立大學校보다는 월등히 싸고 저희는 지금 서울大學校 수준에다 맞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登錄金도 한 學期 登錄金이 50萬원선이요. 서울大學校 수준에다 맞춰놓고 합니다.

○孫馥 委員; 學生이 4,000名이 되면 4,000名에 必要한 施設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事務局長 尹佑吉; 그러나 市立大學校를 앞으로 發展을 시키려면 實習機資材나 안 그러면 學校施設投資는 계속해야 學校의 位相도 높아지고.....

○孫馥 委員; 그러면 教育部에다가 어떤 增員要請이나 이런 것 했을 때 가장 안 되는 理由가 어디에 있습니까?

○事務局長 尹佑吉; 教育部의 學生增員 같은 것은 수도권 학생수요 이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金相復 委員; 人口抑制策.

○事務局長 尹佑吉; 人口抑制策, 뭐 이런 것에 저축도 되고 增員 같은 것이 아주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總長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예 그냥 화끈하게 그냥 우리가 서울시에서 運營하지 말고 아예 個人育成業者, 또 教育에 관심이 있는 재벌들한테 넘겨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의견, 總長님 같으면 아주 오늘 좋은 哲學을 듣고 싶었는데 代理해서 소박하나마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만날 慢性赤字가 뻥해요. 이게 慢性赤字가 뻥한 것을 이것을 處理를 해야지 말이야.

○孫馥 委員; 아니, 地方學生이 현재 60% 와 있고 거기에다

寄宿舍 만들어서 地方學生들을 다 市民들이 稅金을 내서 하려고.....

○李汪烈 委員; 우리 教授, 敎職員들도 다 福祉行政을 받으셨을 테고 그렇게 되면 그런 次元에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事務局長 尹佑吉; 그런 問題는 제가 答辯하는 것보다는 우리 敎務處長님께서 總長님 대신해서 우리 學校 敎務處長님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相復 委員; 李汪烈 委員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것 참 좋은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豫算審議를 함에 있어서 참 좋은 얘기입니다. 어찌면 根本的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個人의 意見입니다만 이것은 總長님이 대답 못합니다. 敎授會議에도 結論을 못 내리고 실지로 따지고 보면 市議會에서 結論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市議會에서 結論을 내린 狀態에서 市長의 方針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인데 반대로 되어.....

○李汪烈 委員;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저기 敎授協議會도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게.....

○金相復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本人의 생각이 참 화기애애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시각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어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서울市立大學을 보는 그 視覺이요, 엄청납니다. 그것은 아마 자중하셔야 될 거예요. 研究하고, 두 가지 問題 때문에 解決을 못하면 두 가지 문제를 解決하기 위한 그 서울市立大 執行部署는 정말 市立大를 애호한다면 목을 걸고 일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시각의 變動은 틀려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事務局長 尹佑吉; 저희 學校에서도 물론 總長님이 選舉에 의해서 總長이 되셨고 우리 學校 補職教授들이나 균형있는 學校發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상당시간 그 會議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多角的인 方法을 檢討를 하고 있는데, 學校에 그런 問題는 金相復 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요인과 또 李汪烈 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要因,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答辯하기 곤란하고 敎務處長님께서 정답이 되시는지 몰라도 答辯을 해 드리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그리고 여기 豫算問題 시정될 것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죠.

○事務局長 尹佑吉; 안 그러면 뭐 그 합의를 놓고.....

○孫允準 委員; 조금 전에 구태의연한 그런 方法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화끈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과감히 끌어다가셔야죠, 責任者들이!

○事務局長 尹佑吉; 네, 學校關係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그 양면을 두고 檢討를 하고 있지 꼭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자기 편에 유리한 立場만 가지고 我田引水式의 해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汪烈 委員; 그래 저쪽에 敎務處長님,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도 質問했으니 예의는 차려주셔야죠.

○敎務處長 李揆穆; 敎務處長입니다. 혹시 敎育局과 관련되어서 미흡한 分野가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와서 뒷전에 앉아있었더니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汪烈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것은 사실상 제가 참모역할을 하는 立場에서 答辯할 內容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직이 敎授協會 會長입니다. 그리고 敎授들과 그런 우리 大

學의 將來問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內容에 대해서 제 個人的인 所見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가 우리가 對外的으로 얘기를 할 때 國際都市, 서울시가 만든 유일한 公立大學, 이것이 저희 大學에 어떻게 보면 可能性이자 限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大學을 어느 某 재벌이라든지 어디에 넘겨준다는 것은 어떤 面에서 財政面에서 財政을 많이 支援받을 수도 있다는 면에서 반가울지는 모르지만 저희 대학의 名分과 또 나아가야 될 目標에는 違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豫算이 제가 언뜻 보면 한 3兆가 좀 넘는 豫算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도와주셔야 될 돈이 지금 120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4% 이렇게 된다고 흔히 말씀드립니다만 자립도가 얼마나 하는 次元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정도 수준의 大學으로 키워졌으면 좋겠는가 이러한 데 대한 어떤, 특히 여기 議會도 있고 저희 市長님도 저희가 直選해서 이렇게 選出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느 정도 수준의 大學으로 키워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확고한, 변하지 않는 어떤 方向設定을 아까 저 金相復 委員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討議하거나 이쪽에서도 提示해주시고, 또 저희도 研究를 하고, 또 그러한 어떤 學校를 키워 준다는 立場에서 자립도 次元이 아니라 必要한 만큼 혹은 必要한 것보다 더 챙겨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도 저희가 또 그렇지 않다는 점도 저희 企劃室長이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C級인 것이 事實입니다.

그리고 특히 실험실습 豫算關係도 質問 있으셨고 또 電算網關係도 質問 있으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C級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障礙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後發學科 問題라든지 制御計測科에 지금 2億 1,000萬원이 저희가 計上이 되어 있고 또 3億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一般實驗豫算으로 實習費豫算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못 쓰는 理由 중의 하나가 그것을 쓸 수 있는 機資材가 충분히 있지 못하다는 것, 學年이 增加함으로써 學生數가 增加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機資材를 確保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실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次元의 問題 때문에, 특히 制御計測科 같은 것은 아주 尖端分野이면서도 저희가 초보적인 그런 段階에 있기 때문에 一般實驗實習機資材豫算에 별도로 2億 1,000萬원을 갖다가 計上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관련된 分野고, 그 다음에 電算問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조금 저희보다 앞서있다고 하는 學科에서는 소위 地域電算網體制라는 것이 있습니다. LAN.....

○李汪烈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 여러 가지 광대하게 關係資料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하셨으면 되셨고요. 結論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러 學校를 많이 하고 본 것이 많이 나름대로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赤字가 4兆입니다. 4兆, 4兆나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의 赤字야 새발의 피입니다. 하나 이것을 우리가 뻔히 애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도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制度的으로 裝置를 좀 해보자, 그러면 그 전주곡, 전주단계로 예를 들어 定員도 묶여 있으니까 定員을 푸는데는 文教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文教部の 局長이라든가 완전히 政策決定을 할 수 있는 우리 市議會의 몇 사람

하고 또 市立大學校 몇 사람하고 시청에 뭐 부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討論會를 갖고 풀어주든지 이 學校에 대한 어떤 政策的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件을 우리가 나름대로 풀어보자 그 어떤 그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해 보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것을 하셔서 그것을 具體적으로 언제 몇 일 가장 빠르게 討議의 廣場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을 學校에서 또 부담스럽다 하면 실력이 없으면 또 우리가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해 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걸 답답하기 짝이 없거든요. 우리는 살려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석을 하시고 양지하셔서 學校發展에 도움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敎務處長 李揆穆;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大學發展計劃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그 敎授協議會 會長님을 모시고 總長님도 지금 長短點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立大學을 市에서 育成하는 것과 같이 外國의 先例도 하나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學生數가 60%가 地方學生이라면 굳이 사실 慢性赤字를 보면서 계속 서울시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러한 立場이 옳다고 보는지, 우리 敎授會 會長님이 市民의 立場에서 한번 바꾸어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敎務處長 李揆穆; 豫算案 審議에서는 벗어난 內容이고 제가 또 市立大學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孫允準 委員; 왜냐하면 審議에서 벗어나는데 그러한 敎務處長님이 사실상 꼭 존속해야겠다면 저희들이 그 안목에 들어

가면 豫算 削減할 것 없이 많은 補充을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學生에 비해서 많은 豫算이 들어갔다고 하면 좀 委員들로서는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敎務處長 李揆穆; 지난번 行政監査에서 市立大學의 入學을 서울市內 居住者한테 무엇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 보라 이런 指摘이 있던 이후에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研究를 하고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方法으로든지, 授業料問題라든지 入學特惠問題에 대해서 서울市內에 그 市民들의 자녀들에게 惠澤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지금 檢討中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指摘을 받은 이후에요.

그리고 全 世界 어느 大都市마다 그 都市의 附設大學校가 있습니다. 都市에서 相關한 大學校가 있기 때문에 저희 大學은 지금 現在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名實相符한 서울市가 세운 大學으로서 發展이 되도록 여러 가지 方案을 摸索하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以上으로 서울市立大學校 豫算案에 대하여 質疑와 答변을 終結을 하겠습니다.

오늘 豫算案을 審査한 서울特別市 公務員敎育院, 公報官, 그리고 서울市立大學校에 대한 計數調整에 대한 議決은 1991年 12月 13日 서울特別市敎育廳 審査를 한 후 일반적으로 計數調整에 대한 議決을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長時間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5分 散會)

○出席委員

權會榮	金相復	曹相彩	劉起鍾
孫允準	金熙健	李鍾學	孫馥
李汪烈	張精一	李喆鎬	趙貞順
朴善童	李載震		

○專門委員

鄭永國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公務員教育院

院長	金濟亮
教學課長	吳錦錫
庶務課長	千楠洙
企劃課長	蔡昇基
銓衡室長	朴東慧
公報官	李相鎭

서울市立大學校

事務局長	尹佑吉
教務處長	李揆穆
電算所長	魯勝容